하나님의 속성은 나의 내공

(이사야 40:1~31)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나의 내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나의 내공'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쓰는 무공(武功)은 크게 초식과 내공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초식(招式)'이란 태권도의 품새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상단 막고 허리지르기, 상단 막고 옆차기와 같이 정해진 형식을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공(內功)'이란 내가(內家)의 공부(功夫)를 줄인 말로써 몸 안에 쌓인 힘입니다. 무협소설에서는 체내에 응축된 기의 흐름으로 표현합니다. 이 내공의 세기를 공력이라고 합니다. 공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내공을 쌓아온 햇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공을 쌓았다면 10년의 공력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60년을 갑자라고 하는데, 1갑자의 공력이 쌓인 사람이라면 60년간 수련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를 쌓아온 내공이 있으면 이 기운을 밖으로 발출하게 됩니다. 이때에 보통의 인간은 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가능해집니다. 내공의 수위에 따라서 파괴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적들이 무수한 표창이나 독침을 쏠 때에 60년 정도의 내공을 쌓은 도인이라면 내공을 뿜어서 전신을 방어하는 방어막을 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내공을 검에 실으면 검이 닿지도 않는 곳까지도 베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풀잎이나 나뭇잎에 기를 담아 던지면 창이나 칼보

다도 날카로워지고, 다리에 기를 실으면 20m 높은 담장도 쉽게 뛰어넘습니다.
한편 성도에게도 내공은 필요합니다. 다만 무협소설에서 나오는 내공이 아닌 신앙적 내공입니다. 오늘은 성도에게 필요한 내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자랑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자랑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 역사의 절대 주권자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을 자랑하듯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예언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100여년이 흐르고 나면 남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선민들의 포로귀환이 16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 왕국 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때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선민의 나라를 망하도록 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못되게 굴었던 것은 비단 선민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해방시키실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자랑하시니 듣는 입장에서는 화가 날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사건은 선민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비유적 사건입니다. 선민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이미 세상의 포로 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바벨론의 포로사건을 일으키셔서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60년 뒤에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세상에 사로잡힌 포로생활은 이미 지금도 진행 중이며 과거에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포로가 되어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건과, 하나님의 속성이 열거됨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15절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는 너무도 인색하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

다.
돈이 없을 때에 그 대단한 능력 중에 일억 분의 일만 활용하셨더라도 내가 이처럼 찌들려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기암에 걸려 죽을 지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적 능력의 천억 분의 일이라도 활용하신다면 쉽게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자기자랑을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대단하셔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신 이유는, 선민들에게 다시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 상태에서는 삶의 여건과 형편이 나아져야만 행복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포로 된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없어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여섯 번이나 없음이 강조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돈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조건이 어떻든지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린다면 이것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 이기고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시지, 지금 처한 형편을 개선시켜가며 포로 된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속성들을 가지셨지만 내 삶을 개선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데에는 무척 인색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러하신 속성들을 강조하신 이유는 내공을 쌓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속성들을 우리의 삶에 발휘하시지 않는 이유는 포로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포로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포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내공으로 쌓아서 세상 형편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면 골짜기가 평탄해지고 산의 높이가 사라집니다. 즉 인간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놓일지라도 두렵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지도 않게 됩니다. 또한 타인을 대할 때에도 낮게 보지 않으며 위축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보여주신 태도가 그러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공회원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였습니다. 이는 예의를 벗어나는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도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빌라도를 가볍게 여기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천시하던 창기와 세리들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전달하셨고 죄인들의 친구로 불릴 정도로 포용하셨습니다. 이게 내공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한 내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빈 강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육체의 장수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영원한 평안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 대왕에게 잡혀서 참수를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9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감옥을 나올 때까지도 비몽사몽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내공입니다.
그 대단한 소련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평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일 죽는다하여도 숙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내공을 가지기를 바라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앗수르와 바벨론은 요새의 미국과 중국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열방들을 향하여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저울을 기울일 수 없는 티끌 정도로 밖에는 여기시지 않습니다. 정작 저울을 기울이는 것은 남 왕국 유다의 선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이처럼 묵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의 나라를 넓히시고 무기와 군사가 넘쳐나게 해서 세상의 판도를 바꾸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입꺼리 밖에 안 되는 선민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앗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깨지지 않는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의 불평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속성을 자랑만 하시고 내게는 행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바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30~31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하였습니다.
넘어지며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한 새 힘을 얻는 내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직장에서도 잘렸습니다. 그럼 이제 불행해져야 할까요? 능력 많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심을 불평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삶의 여건을 바꾸기 원한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포로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내공으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물주 되심을 마음에 끌어들이면 물질이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재벌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믿기에 재물과 관련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내공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나 스스로 세상의 포로 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조물주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들어와서 내공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포로가 된 마음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공이 없어서 걱정과 불평만 하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일을 계속할 때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의 의미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이 나의 내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티끌보다 작은 나의 마음이 세상 천하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공을 내뿜을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의 포로 된 내가 죽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내공으로 바꾸면서, 말과 행동에서 내공을 내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바라보며 세상에 포로 된 내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여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의 내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손을 뻗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세상을 이기는 공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